

# “동국대박물관을 포교공간으로”

### 국보등 유물 3천여점 소장...대부분 성보 청소년·외국인에 한국불교 알리기 '적소'

### 건물 노후·예산부족등 일반인 개방 '애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려면 어디로 안내하는 것이 좋을까?

불교전문박물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교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다. 차선으로 서울 요지에 위치한 동국대 박물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 숭실대 박물관이 기독교자료를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개의 테마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국대 박물관도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명소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로 개관 35년을 맞는 동국대 박물관은 현재 조그만 3층건물에 상설전시장 1곳, 수장고 6곳, 유물처리실 1곳을 갖추고 있으며, 3천여점이 넘는 유물 가운데 1백 70점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국보 209호인 보현인석탑(사진 정면)을 비롯

보물 309호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국가 지정문화재만도 11점이 포함되어 있어 박물관으로서 지니는 비중도 높다. 또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입지조건과 오랜 역사만큼 쌓아온 연구성과와 배출해낸 인적자원이 풍부해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현재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은 고작 2명인데다가 그나마 임시직이라 체계적인 유물관리와 보존에는 부적합하며, 시설도 박물관이 필히 갖춰야 할 항온항습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 건물자체가 독립건물이라고는 하나 노후된데다가 본래 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

동국대 박물관 한상길연구원은 “동국대 박물관은 유물의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며, 오랜 경험이 축적돼 있어 불교전문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만 대학박물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예산부족과 맞물려 불교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대중적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동국대 박물관의 예산은 8천만원으로 대부분 유물구입에 쓰이고 있어 인원충원이나 시설확충은 일무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 현대의 박물관 기능이 유물의 관리와 전시 외에 교육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재단과 종단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숭실대 박물관은 지난해 개교 100주년

을 기념해 설립한 한경직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 유일의 기독교박물관으로 키워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국대도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독립건물의 신축과 함께 전시실을 확충, 불교문화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 동국대 인근의 남산, 국립극장, 신라호텔 등과 연계하는 관광코스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opia.com)

## 불심시집 <135>

### 삼과 죽음

爾生我死死何哀 (이생아사사하에)	네 살고 내 죽었다면 죽음 무엇 슬프라만
爾死我生生亦哀 (이사아생생역에)	네 죽고 내 살았으니 삼 또한 슬프다
淚滿西風怨冥漠 (누적서풍원명막)	서풍에 뿌리는 눈물, 원망만 아득하여
老天斜日有餘哀 (노천사일유여애)	높은 나이, 지는 해에 끝없는 슬픔.

무경(無竟 1664~1737)대사가 죽은 제자를 애도하여 지은 시이다. 제자의 이름을 금화(錦花)라 한 것으로 보아 비구니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죽음이란 삼의 한 절차이니 세월의 흐름에 의한 자연스런 죽음이야 가는 걸음걸이의 한 발자국이지 있음과 없음으로 구별되어질 일도 아니다. 그러기에 높은 내가 죽었다면야 슬플 것이 무엇이겠나만, 젊은 너의 죽음은 나의 삶이 의미가 없을 만큼 삼의 절차를 거슬리는 것이다. 이 시는 제문과 함께 쓴 것이니, 제문을 한 번 읽어 볼 만하다.

‘망제자 금화를 화장하던 날 높은 스승은 눈물을 뿌리며 제문을 써서 슬픔을 권하며 영결한다. “오! 금화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람살이에 죽음이 있는 것은 밤과 낮 같은 필연인 것으로 굳이 있어야 할 이치이니 삶이면 누구에게나 없겠느냐마는 너에게서와 같은 일은 끝내 드문 일이다... 오! 네 나이 2·8에 처음 나에게 왔고 내 나이 6·7에 또 너를 만나, 너와 내가 함께 살아온 지가 지금 10년에 또 해가 되었으니 네 나이 이제 겨우 스물 여덟이요, 내 나이는 벌써 천다섯이구나. 내 하루 아

침에 이슬이 되어 너의 소망을 외로이 버릴까 염려하였지, 네가 나를 버리고 갈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였으니, 젊은 제자의 죽음을 이렇듯 슬퍼하고 있음이 바로 대사의 인간적 단면이다. 제문의 내용으로 보아 재주가 뛰어난 비구니로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것 같다. 우연히 해소병을 앓아, 대사는 요양처를 옮겨가면서까지 치료해보려고 애썼지만 끝내 효험 없이 가고 말았다.

이 시는 이러한 사제의 정을 긴 설명 없이도 이해하리만큼 간결한 정감이다. 죽음이라는 동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처지에 따라 슬픔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시는 이러한 처지를 자신에게 돌려놓으면서 제자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이 스님으로서 생사의 길을 초연히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 애석을 아득하게 승화시키는 순수함이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스님들이 승 속의 거리를 두면서도, 승 속의 막힘이 없는 격외의 탈속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대사의 이러한 정리는 승 속을 앞에서 잡아가는 슬픔의 정리가 아니라 인간의 순수한 일상의 정린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세번째 ‘연꽃전’ 갖는 일선스님

## “불법 연꽃으로 형상화”

비구니스님들의 꽃꽂이나 음악 등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미술로 포교하는 비구니스님으로는 거의 유일한 일선스님(서울 용화사). 이미 두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가지며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일선스님이 7년 만에 세번째 개인전 ‘연꽃’을 1~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연꽃시공의 미소에서 보듯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번 전시회도 연꽃을 부처님 마음으로, 연꽃과 불가분의 관계인 물을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탄생’ ‘생동’ ‘성하’ ‘효심’ 등으로 이름지워진 40여점의 연꽃그림은 간결함과 간결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색감이 매우 탁월하다. “부처님의 진리를 그림으로 형상화해 시공을 뛰어넘는 불법의 가르침을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싶다”는 것이 일선스님의 바람이다.



이경숙 기자

### 김경호씨 서예전

9일까지 전북 예술회관

서예가 외길 김경호씨의 서예전이 9일까지 전주시 전북예술회관 2층 제4전시실에서 열린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서예전에는 ‘반야심경’ ‘법성경’ ‘법구경’ 등 50여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시 서 화가 고루 갖춰진 서예인으로 평가받는 김경호씨는 지난해 열린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창작음악 ‘茶樂’ 만든다

## “차와 국악은 동반”

11월15·16일 발표회 은은한 색에서 보는 즐거움을, 향기로운 내음이 후각의 즐거움을, 따스한 온기가 촉각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섯가지의 오묘한 맛을 즐기며 마시는 한잔의 차. 여기에 듣는 즐거움이 덧붙여지게 됐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경수)가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놓기’라는 취지로 다악(茶樂)을 만들어 오는 11월 15일(오후 3시, 7시) 16일(오후 7시)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다악 작곡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는 다악과 함께 차생활문화원 등 차인들과의 대제시연도 있으며 신라 총담스님, 초의선사의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의 교류를 다룬 무언극과 차에 바치는 연다무 등도 함께 공연된다.

현재 다악은 이성천(서울대 음대 학장) 이진용(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 황병기(이화여대 국악과 교수) 김희조(前 서울예전 교수) 백병동(서울대 작곡과 교수) 박일훈(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씨들 우리나라 국악계와 양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에게 작곡이 의뢰되어 있다. 연구회측은 이번 다악이 완성되면 CD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며 이어 이병욱(서원대) 김영동(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 이종구(한양대 교수) 박범훈(국립국악관현악단장) 이준호(경기도립관현악단장) 씨 등에게 두번째 작곡발표회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창작음악연구회 김경수 회장은 “현재 전통차집 등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은 가야금병창 등 국악소품이 대부분이고 다례시연 등에서는 ‘수제천’ ‘영산회상’ 등이 연주되나 너무나 장중하고 무거워 현대인의 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행다(行茶)와 어울리는 새로운 창작음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차문화의 상징성이 되도록 좋은 차음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opia.com)

### 북장사 괘불탱·오어사 동종 등 불교문화재 3점 보물지정

상주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 등 불화류 2건과 포항 오어사 동종 등 성보 문화재 3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북장사 영산회괘불탱(보물 1278호·사진)은 알맞은 비례와 균형미, 밝고 깔끔한 채색 등 17~18세기 괘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죽림사 세존괘불탱(보물 1279호)은 조사된 현존

품으로는 우리나라 괘불탱 중 가장 오래된 것(1622년 작)으로 알려진만큼 독존좌불 형식에 원만하고 단아한 고졸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 가치가 높다. 오어사 동종은 합장한 보살상과 천의를 휘날리는 비천상의 섬세한 문양이 뛰어나며, 제작연대(1216년)와 장인(순광) 등을 밝힌 명문이 새겨져 있다.



【中】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밝혀하여 준다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II·III

###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최정상 불법인 법화사상의 진오와 진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날말조차 붙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민일 말로 해서, 또 머리에 의지한 공부를 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사(道士)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깨우쳐 궁극의 도를 얻고자 하나 깨우침과 성도(成道)는 다르다. 깨우침이 전혀 없이 도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깨우쳐도 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스스로 깨우쳐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된다. 도는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도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 이야기 전 3권 완간!!!

-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한의학과 종교적 가르침을 넘나들며 도(道)의 입장에서 몸과 가정과 사회의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어지럽히 깨뜨리는 묘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진 출중한 근기가 아니라면 보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둠속에서 스스로 빛나 주위를 밝히는 야광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더라도 곁에 두고 읽으면서 평생 지닐만한 책입니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거나와 받아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될지니 이로써 보살행, 부처행을 하소서

■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 보약도 나쁠이다 ■ 화장을 지워라 ■ 담배가 그렇게 유해한가 ■ 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 ■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다 ■ 순둥을 하지 말라 ■ 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 ■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건강 염려증 ■ 병도 소질이 있어야 걸린다 ■ 여자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 차라리 패라! 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다 ■ 용동이 외에는 약이 없다 ■ 약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 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 ■ 성불도 인연이라 일어난다 ■ 스스로 최상승의 근거를 만들라 ■ 묘법연화경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 ■ 약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